

'해양폐기물 제로' 전국 시·도 사무관 방안 논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홍성보 사무관 외 지방자치단체개발원 중견 리더과정 교육생 10명이 지난 28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여수시 돌산읍 금봉어촌계를 찾아 해양쓰레기와 해양 오염 실태를 점검했다. 또 해양폐기물 제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생들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뒤 주거, 조업활동, 방문객 등 투기 과정을 분석했으며, 특히 양식장에 버려지는 페스티로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확인했다. 해양폐기물 제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생들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뒤 주거, 조업활동, 방문객 등 투기 과정을 분석했으며, 특히 양식장에 버려지는 페스티로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확인했다. 해양폐기물 제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생들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뒤 주거, 조업활동, 방문객 등 투기 과정을 분석했으며, 특히 양식장에 버려지는 페스티로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확인했다.

교육생들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뒤 주거, 조업활동, 방문객 등 투기 과정을 분석했으며, 특히 양식장에 버려지는 페스티로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확인했다. 해양폐기물 제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생들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뒤 주거, 조업활동, 방문객 등 투기 과정을 분석했으며, 특히 양식장에 버려지는 페스티로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확인했다. 해양폐기물 제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생들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뒤 주거, 조업활동, 방문객 등 투기 과정을 분석했으며, 특히 양식장에 버려지는 페스티로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확인했다.

조선대병원 교직원 모임체, 새병원 신축 기금 기부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최근 병원 교직원 모임체를 통해 새병원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 등 직원으로 구성된 행우회가 550만원,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직원으로 구성된 의료기사협의회가 512만원의 기부를 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동신대 호텔항공관광경영학부, 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동신대 호텔항공관광경영학부 항공서비스학과 제공>

동신대학교 호텔항공관광경영학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4명이 '2022년도 한국외식경영학회 제48차 춘계학술대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을 지도한 조현진 호텔항공관광경영학부 교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기중혁·김철민·오윤주, 임주희(이상 2년)씨는 지역특산물과 관련된 밀키트 사업으로 '2022 MA(말향)전략-밀키트를 항상 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1인 가구 비율, 간편식 시장 규모, 코로나19 시대 소비자 트렌드와 골목상권의 심각성을 분석해 지역 특산품과 지역 골목상권의 메뉴를 밀키트로 만드는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손쉬운 접근성이 장점인 어플을 활용한 주문, 구입으로 밀키트를 항상 접할 수 있게 한 전략도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팀대표인 김철민 학생은 "공모전 참가와 우수상 수상에 큰 도움을 준 조현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공모전 지도를 맡은 조현진 교수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안서 발표를 위해 주말도 없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학생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동신대학교 호텔항공관광경영학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4명이 '2022년도 한국외식경영학회 제48차 춘계학술대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을 지도한 조현진 호텔항공관광경영학부 교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기중혁·김철민·오윤주, 임주희(이상 2년)씨는 지역특산물과 관련된 밀키트 사업으로 '2022 MA(말향)전략-밀키트를 항상 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1인 가구 비율, 간편식 시장 규모, 코로나19 시대 소비자 트렌드와 골목상권의 심각성을 분석해 지역 특산품과 지역 골목상권의 메뉴를 밀키트로 만드는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손쉬운 접근성이 장점인 어플을 활용한 주문, 구입으로 밀키트를 항상 접할 수 있게 한 전략도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팀대표인 김철민 학생은 "공모전 참가와 우수상 수상에 큰 도움을 준 조현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공모전 지도를 맡은 조현진 교수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안서 발표를 위해 주말도 없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학생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대, EV자율주행 경진대회 은상



<전남대학교 제공>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제1회 국제대학생 EV자율주행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전남대 AI융합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AIMSE'팀(지도교수 김찬수)은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와 세계전기차협회의 주최로 열렸던 '제1회 국제대학생 EV자율주행경진대회' AI Autonomous 1/10 Racer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는 실제 차량의 1/10 크기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형자동차로 경주를 벌이는 것으로, 주행 성적뿐만 아니라 여기에 구현된 다양한 기술에 대한 평가까지 종합해 성적이 산출된다. 전남대 'AIMSE'팀(고병재 인공지능학부, 김석영 IoT인공지능융합전공, 한이수·김민영 지능형로봇융합전공 학생)은 전체 114개 대학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탑-러닝, 차량 제어, ROS를 이용한 자율주행, 영상처리 등의 자율주행차량 운용 테스트 및 코스주행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국제대학생 EV자율주행경진대회는 대한민국 e-모빌리티 분야를 대표하는 경진대회로 신산업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인력양성과 국제전기차엑스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학군사관후보생 하계입영훈련 출정식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왼쪽 왼쪽에서 다섯번째)는 지난 1일 학교에서 '2022년도 학군사관후보생 하계입영훈련' 출정식을 열었다. 46명의 3·4학년 학군사관후보생들은 4일부터 26일까지 육군학병군사학교에서 장교 임관을 위한 자격 등의 기초군사훈련과 평가 등을 받는다. <광주대 제공>

인사

- ◆전남지방우정청
◇전보
▲사업지원국장 김호 ▲관광주유체국장 강기병 ▲광주광산우체국장 신용영 ▲나주우체국장 백대진 ▲광양우체국장 황삼순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the 4th day.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news, documentaries, and entertainment show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4일(음 6월 6일 戊午)
36년생 이중성을 띠고 있으니 혼동할 수 있겠다. 48년생 거북이 등에서 탈을 뜯으려는 격이다. 60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갈 수 있는 없음이다. 72년생 조만간에 곧 결정이 날 것임에 틀림없다. 84년생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96년생 긴급한 비상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기운이 감지된다.
행운의 숫자 : 10, 53
37년생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49년생 이미 떠버린 주사위이니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61년생 강풍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73년생 조그만 허점도 노출해서는 안 된다. 85년생 상호 연관 관계까지 감안하면 나을 것이다. 97년생 정당한 계로 들어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6, 56
38년생 어찌피 상대적이지니 만큼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대응이 달라진다. 50년생 복귀가 늘어나니 즐거움을 더하라. 62년생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74년생 확신이 없다면 삼가라. 86년생 근본적인 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날이다. 98년생 누워진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0, 91
39년생 정성을 들인다면 결과물의 확보도 가능하다. 51년생 순리대로라면 행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하라. 63년생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75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 무방하다. 87년생 포용력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99년생 방법을 충동원해야 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12, 68
40년생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준수하라. 52년생 길경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 64년생 애지중지하여 왔던 바의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76년생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 88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00년생 끝도 없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을 더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1, 74
41년생 오늘의 지름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도 된다. 53년생 미연에 대처한다면 화도 막을 수 있다. 65년생 허심탄회한 토로가 불교를 뜨게 하리라. 77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89년생 행위자의 정확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01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한다면 불분함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88
42년생 전방위적인 안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54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행운을 잡게 된다. 66년생 제대로 흥분 받게 되는 부동함이 있다. 78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90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02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95
43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55년생 서로 맞이 맞으면 이루지 못 할 일이 없다. 67년생 목적이 부합한다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라. 79년생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91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일 것이니라. 03년생 대의를 위해서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9, 61
44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56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밀려날 것임에 틀림없다. 68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에 서둘러서 애를 먹겠다. 80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라. 92년생 막연한 미련을 버리고 결단성 있게 정리해 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04년생 과신은 금물이다.
행운의 숫자 : 35, 82
33년생 가변 감수폭 점정 수해될 것이다. 45년생 기사유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움지 되고 움지가 양지가 바뀌리라. 57년생 지연되었던 난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다. 69년생 어려운 시기를 몇 번 넘기다가 이루어지겠다. 81년생 정리 정돈을 잘 해야 손해가 없을 것이다. 93년생 재만 여건을 조성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3, 73
34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46년생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단계에 임하라. 58년생 웃고 있지만 내면의 고통은 지을 길이 없을 것이다. 70년생 갑갑한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줄 일이 생길 것이다. 82년생 나서야 할 때 망설이면 신망을 잃게 되는 법이다. 94년생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8, 64
35년생 수고로움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47년생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59년생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무탈하다. 71년생 평상시에 마음먹어 왔던 의지대로 행해도 무방하다. 83년생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95년생 있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41, 50